

온건하지 않거나 의도주의가 아니거나

— 온건한 의도주의 비판*

이 해 원**

[초 록]

작품의 해석에서 작가의 의도가 하는 역할을 중시하는 입장을 의도주의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의도주의는 ‘온건한 의도주의’로 진화하면서 극단적 의도주의가 가졌던 불합리함을 극복하려 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절충에 의구심을 표한다. 먼저 의도주의와 반의도주의 간의 쟁점이 분명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반의도주의는 해석을 위해 의도를 고려할 필요 없다는 입장, 의도주의는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구별하는 것은 오도적일 수 있다. 대신 양자는 의도가 의미를 결정하는 경우를 허용하는 의도주의와 그래야 하는 경우가 없음을 주장하는 반의도주의로 구별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어 의도주의가 온건화 전략을 수행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가 되어야 하는지가 검토된다. 온건한 의도주의는 온건함을 위한 동기와 원칙은 천명하였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충적 이론의 형태로 수립될 수 있는지, 또한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지원 집담회>의 성과물 중 하나임.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미학과 부교수

주제어: 분석미학, 해석, 의도, 온건한 의도주의

Analytic Aesthetics, Interpretation, Intention, Moderate Intentionalism

그 결과가 정합적인 이론일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는 상대적으로 간과해 온 듯하다. 결과적으로, 아무 의도나 의미를 결정할 수 없고, 성공한 의도, 곧 공적 요소와 부합하는 의도만 의미를 결정할 수 있게 하려는 온건한 의도주의 동기는 자신의 이론에서 의도주의적 성격을 극도로 약화시킨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온건한 의도주의는 공적인 요소들만으로는 의미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도가 의미를 결정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위 ‘애매한 경우’란 결국 의도와 공적인 요소들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 점을 무시하고 의도가 의미를 결정하게 한다면 이 주장은 공적인 요소를 존중하겠다는 이론의 온건한 측면을 상실한다. 나아가, 온건한 의도주의의 온건하고자 하는 동기는 ‘의도가 의미를 전적으로 결정하는 사례’로 간주되어왔던 반어적 표현을 더 이상 자신을 옹호하는 사례로 사용하기 어렵게 만든다. 결국 온건한 의도주의는 온건하고자 하는 동기와 의도주의에 머물고자 하는 동기가 한 이론 안에서 서로를 부정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반의도주의와 거의 유사한 이론으로 귀결되거나 아니면 극단적 의도주의의 문제를 그저 무원칙적으로나 해결할 수 있는 이론이 될 것 같다는 것이 이 글이 논증하려는 바이다.

1. 들어가며

작품의 의미와 작가의 의도 간의 관계와 관련된 의도주의 대 반의도주의의 논쟁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주제는 영미 분석 미학의 논의 영역에서 옹호와 반박, 절충과 변주를 계속하고 있다. 반세기 전 반의도주의가 낭만주의적 비평 관행을 극복하는 분석미학의 성취로 여겨졌던 것에 비하면 오늘날에는 오히려 예술 작품의 의미 해석을 위해 실제 의도에 의존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시 지지를 넓혀가고 있다. 필자는 앞선 논문에서 최근까지 영미권에서 진행된 반의도주의와 의도주의, 두 이론적 경향들 간의 원론적인 대립 양상과 논쟁사를 정리

하고, 필자의 지지가 반의도주의로 기우는 이유를 제시한 바 있었다.¹⁾ 필자가 반대하는 의도주의는 의미론적 의도와 관계된 의도주의로, 작품의 의미 해석에 있어 작가의 의도가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작품의 의미 결정과 관계된 의도 이외에도 범주적 의도(작품이 어떤 존재인지를 결정하는 작가의 의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의도주의를 포기할 수 없게 하는 원초적 직관 중 하나가 작품이 의도의 산물이라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 이는 의미론적 의도보다는 범주적 의도를 활용해 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필자는 만일 의도주의와의 타협이 필요하다면, 반의도주의를 유지하면서 특정한 예술에 한해서는 이러한 범주적 의도를 수용하는 정도로서 의도주의자들이 원했던 목표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종의 절충적 입장도 그 논문을 통해 제안한 바 있었다.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를 옹호하는 오종환 교수는 2016년 9월에 진행된 학술토론회에서 반의도주의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의도주의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²⁾ 오 교수의 논변을 통해 의도주의가 어떠한 직관에 호소하고 있으며 반의도주의에 대해 어떤 불신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좀 더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과연 그러한 버전의 의도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립될 수 있는지, 그것이 반의도주의와 어떤 쟁점을 형성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온건한 의도주의는 극단적 의도주의의 문제점을 회피할 수 있다고 주장되는데 그것이 정확히 어떤 모습일 수 있는

1) 이해완(2014), 『작품의 의미와 의도주의 - 반의도주의 논쟁』, 『미학』 79, pp. 195-236.

2) 서울대학교 인문학 연구원의 집담회 지원을 받은 제127회 미학과 콜로키움(2016년 9월 22일)에서 의도주의 논쟁과 관련되어 입장을 달리하는 오종환, 이해완, 윤주한의 발표가 있었다. 오종환 교수는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 옹호’라는 제목의 발표문(미출간)에서 반의도주의에 대한 비판적 논변들을 제시했는데, 이 논문은 그에 대한 필자의 견해이다.

지에 대해서는 오 교수뿐 아니라, 이론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절충을 시도하고 있는 다른 미학자들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혹자에게는 그러한 절충이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자명하고 상식적인 것일지도 모르겠으나, 필자가 보기에 이 문제는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것 이상의 논의의 필요로 하는 것 같다. 온건한 의도주의가 시도하는 절충의 성패는 그 구체적 모습을 정합적으로 그려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의도주의가 상대방인 반의도주의에 대해서 뿐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도 다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의도주의건 반의도주의건 자신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경쟁하는 입장들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접근의 방향과 전제가 다르고 주목하는 지점이 다른 두 입장이 스스로를 설득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각자 자신들의 강조점과 그것을 지지하는 직관을 활용하여 그에 상응하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일 각자의 입장에서 양보할 수 없는 직관이 있다면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며 논쟁은 그저 각자 입장을 서로 다른 언어로 제시하는 데 그치게 될지 모른다. 그렇더라도 쟁점을 동일한 지평 위에 놓고자 하는 노력은 시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오 교수의 몇 가지 지적을 도약대로 삼아 필자의 관점에서 이 논쟁과 관련된 양 진영의 대립을 파악해보고, 그러한 파악을 전제로 할 경우에 온건한 의도주의가 처하게 될 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 글이 비판적으로 분석할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는 오 교수뿐만 아니라 캐럴(Noël Carroll)³⁾과 스테커(Robert Stecker)⁴⁾ 등의 영미 미학자들

3) N. Carroll (1992), “Art, Intention and Conversation,” *Intention and Interpretation* (ed. by G. Iseminger),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pp. 97-131; N. Carroll (1997), “The Intentional Fallacy: Defending Myself,” *JAAC* 55, pp. 305-309; N. Carroll (2000), “Interpretation and Intention: The Debate Between Hypothetical and Actual Intentionalism,” *Metaphilosophy* 31, pp. 75-95; N. Carroll (2002), “Andy

도 지지하는 입장이다.⁵⁾ 이 입장은 극단적 의도주의가 가진 의미 결정의 자의성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해석 이론은 그러한 자의적 의미 결정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반의도주의와 공통된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차이점은, 반의도주의는 자의적 의미 결정성을 부정하기에 의도의 의미 결정성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는 반면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는 여전히 해석에서 실제 의도의 중요성을 고수한다는 것이다. 온건한 의도주의가 의도주의의 유지와 자의적 의미 결정의 배제라는 두 원칙을 모두 존중하는 것이 가능할까? 필자에게는 이것이 의심스럽다. 일단 의도주의가 무엇을 주장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고 나면, ‘실제 의도는 존중하되 의미 결정의 자의성은 도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은, 비록 ‘호객’을 할 수 있을 매력적인 슬로건이지만, 그 안에 일관성과 원칙을 갖춘 이론적 실체가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며 이 글을 통해 그것을 논증하고자 한다.⁶⁾

Kaufman and the Philosophy of Interpretation,” *Is there a Single Right Interpretation?* (ed. by M. Krausz) University Park: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캐럴은 또한 비평을 다룬 자신의 책 2장과 3장에서 각각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의도주의를 옹호하고 있다. N. Carroll (2009), *On Criticism*, N.Y.: Routledge, 특히 pp. 135-152. 캐럴의 입장에 대한 간략한 요약과 비판은 이해완(2017), 『노엘 캐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pp. 44-49.

- 4) R. Stecker (2006), “Interpretation and the Problem of Relevant Intention,” *Contemporary Debates in Aesthetics and Philosophy of Art* (ed. by M. Kieran), Malden, MA: Blackwell, pp. 269-281. 스테커 버전의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에 대한 비판은 이해완(2014), pp. 212-220.
- 5)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자로 간주되는 학자들의 목록은 S. Davies (2006), “Authors’ Intentions, Literary Interpretation, and Literary Value,” *BJA* 46, pp. 225-226 각주 4를 참조.
- 6) 현대의 의도주의자가 모두 온건한 의도주의자인 것은 아니다. W. Irwin (2015), “Authorial Declaration and Extreme Actual Intentionalism: Is Dumbledore Gay?” *JAAC* 73. 그러나 필자의 판단으로는 어윈의 논문에서 주장된 ‘극단적 실제 의도주의’가 온건한 의도주의의 대안이 될 정도의 일반적인 설득력을 가진 것 같지는 않다.

2. 의도주의 이해하기

먼저 오 교수가 발표문에서 제시한 주장들 중 일부를 개관해 보기로 하자. 오 교수는 자신의 온건한 의도주의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언어의 공적인 측면만으로 그 발화의 의미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 … 그 발화는 양의적이거나 다의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기에 우리는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의미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다.” “만일 의도주의를 화자의 의도가 발화의 의미를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주장으로 해석하여 의도주의를 공격한다면 이는 허수아비에 대한 공격”이 될 것이며 따라서 “의도주의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언어의 공적인 요소를 인정하는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moderate/modest [actual] intentionalism)’에 한정되어야 한다.”⁷⁾ 이러한 서술들을 통해 우선 오 교수의 입장이 온건한 의도주의라는 점, 이 입장은 의미의 해석에 있어 언어의 공적 요소를 인정한다는 점, 그러나 그것만으로 발화의 의미가 확정되지 않는 애매한 경우가 있기에 의도가 고려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중에는 반의도주의의 입장을 다소 강하게 설정하였기에 따라 나오는 주장도 눈에 띈다. 예를 들어 의도주의는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라는 질문과 ‘이 작품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렇다고 반의도주의를 “이 둘이 완전히 별개”⁸⁾라고 보는 입장이라거나 “맥락만으로도 작품의 의미가 확정될 수 있다”⁹⁾는 입장으로 보는 것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의도주의라고 의도와 의미 간의 연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의도주의라고 그들 간에 ‘연관이 있

7) 이상의 인용은 모두, 오종환(2016),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의 옹호』, 서울대학교 미학과 제127회 콜로키움 발표 원고 (미출간), p. 1.

8) 오종환(2016) p. 5.

9) 오종환(2016) p. 3.

음’ 정도만을 주장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또한 오 교수는 “작품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만 우리는 작가의 의도를 물어본다. 작품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경우, 의도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필요하지만 그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물어보지 않는 것”¹⁰⁾이라고 설명하는데, 의도를 물어보는(참조하는) 정도로도 의도주의가 성립되는지, 이는 지나치게 약한 의도주의가 아닌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필자는 의도주의 논쟁이 ‘의미는 어떻게 결정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라고 믿고 있기에, ‘작품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 의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론적으로 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러한 구절을 통해 드는 의문, 즉 과연 의도주의는 자신들의 기본 주장과 반의도주의의 기본 주장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무엇으로 보아야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예를 들어 온건한 의도주의와 반의도주의의 차이를, ‘전자는 의도를 먼저 확인하고 그것이 작품의 공적인 요소에 의해 지지될 경우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후자는 아예 의도를 고려도 하지 않는 입장’으로 설명하는 것은 양자 모두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아니거나 최소한 핵심 논점을 거론하는 설명이 아니다. 후에 더 논의되겠지만, 반의도주의가 의도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의미 결정에 있어서의 공적인 요소들의 역할을 존중하기 때문이라면(이 점은 온건한 의도주의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위와 같은 식으로 구분된 의도주의와 반의도주의는 거의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하나의 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양자의 차이는 다른 방식으로 설정되고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의도주의이건 반의도주의이건 필요한 것은 다음의 각 차원에서 자신들의 입장과 주장을 선명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1) 원론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타당한 동기, (2) 상대방과 분명히 구

10) 오종환(2016) p. 4.

분되는 구체적이며 정합적인 주장, (3)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사례, 그리고 필요하다면 (4) 상대방이 제시한 반례에 대한 해결책 정도가 될 것이다. 의도주의는 (1)과 관련하여서는 발화건 작품이건 의도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생각(의도와 작품 간의 인과 관계), 일상 대화에서는 의도의 파악을 의미로 본다는 우리의 대화 관행, 그리고 작품은 일상 대화와 유사하다는 유비 관계를 든다. “발화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 발화자의 의도를 전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도 아니고 경험적으로 실제의 상황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일상적으로 행위나 발화 그리고 인간의 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없을 때 주체나 생산자의 의도를 당연히 떠올린다.”¹¹⁾와 같은 서술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동기를 갖도록 하는 현상들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의도와 작품 간의 인과 관계는, 의도가 작품을 ‘있게 한다’는 의미에서 존재론에 속하는 것인데, 그 관계가 의미의 파악에도 핵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또한 작품의 해석 상황은 과연 일상 대화의 상황과 유비 관계를 적용할 수 있을 만큼인지 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면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의도주의자의 직관에 못지않은 상반되는 직관이 존재한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진단 같다.¹²⁾ 예를 들어, “그런 의도였다면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같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발화 의도의 파악이 발화의 의미 파악이라고 생각하는지는 일상 대화에서조차도 분명치 않다.

한편 반의도주의는 (1)에 대한 답으로 의미 결정에 있어서의 공적인 측면이 존중되어야 하고, 의미의 자의적 결정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기대는데, 원리적인 지지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 역시 부족함 없이 정

11) 오종환(2016) p. 1.

12) 데이비스는 의도주의가 온전한 의도주의로 이행하는 것 자체가 의미 해석과 일상 대화 사이의 평행 관계 주장에서 이미 후퇴한 것이라고 진단한다. S. Davies (2006), p. 228.

당한 동기라고 볼 수 있다. 심지어 의도주의자들도 이 원칙을 존중해야 할 것 같은 압력을 느끼기에 온건한 의도주의로 이행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비록 양 진영의 동기가 각각 우리들 직관의 중요한 측면에 기대고 있더라도, 한 쪽은 상대방의 핵심 동기를 우회할 수 있는 설명을 모색해 볼 수 있는 반면 다른 쪽은 상대방의 핵심 동기를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필자가 보기에는 시사하는 바가 있는 차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온건한 의도주의가 (2)와 관련된 적절한 답변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오 교수의 예를 인용하여 생각해 보자. “백두산에는 천지가 있다”고 말한 화자가 실제로는 그 문장을 통해 ‘한라산에는 백록담이 있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었다고 하자. 오 교수에 따르면 이 경우, 발화한 문장이 ‘한라산에는 백록담이 있다’를 의미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의도주의자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극단적 의도주의가 아닌, 온건한 의도주의는 언어의 공적인 요소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의도주의는 이러한 이유로 의도주의를 공격할 수 없다. 이는 캐럴과 스테커를 포함한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자들이 공통으로 지지하는 입장으로 일견 의도주의로부터 극단적인 모습을 제거하는 합리적인 절충의 움직임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부터 검토하여야 할 것은 이러한 절충의 움직임이 정확히 어떠한 원칙하에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하는 점이다.

먼저 예비적으로, 오 교수가 의도주의에서도 의도가 의미를 ‘전적’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할 때, 이것이 의도가 의미를 ‘부분적’으로 결정한다는 뜻은 아님이 분명하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한라산에는 백록담이 있다’는 화자의 의도는 “백두산에는 천지가 있다”는 문장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 부분적으로도 아무 역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의도주의자가 이러한 사례를 인정한다는 것은, 의도가 의미 결정에 아무 역할을 하고 있지 않고 대신 의미가 언어의 공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되

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의도가 언어의 공적인 요소와 충돌할 때가 그런 경우라는 것도 인정한다. 즉 온건한 의도주의의 지지자들은 공통적으로, 단어의 의미와 문법,¹³⁾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확립된 관행이 있다면 그와 상충되는 의도를 무시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을 인정한다. “천지”라는 발화를 통해서 ‘백록담’을 의미할 수 없고 “빨강”으로는 ‘분홍’을 의미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온건한 의도주의가 ‘의미는 언어의 공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만을 주장하는 입장일 수 없음은 당연하다. 이는 곧 의도주의의 포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온건한 의도주의는 어떻게 언어의 공적인 요소를 인정한다는 것과 의도가 여전히 의미의 결정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양립시킬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언어의 공적인 요소가 어떤 식으로건 의미를 결정하는 의도에 제한을 가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의도에 대한 참조는 필수적인 그런 방식으로 의도와 언어의 공적인 요소를 연계시키는 것이 가능할까?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극단적 의도주의를 약화시키는 방식이다. 온건한 의도주의자는 의도주의의 직관을 살리고 의도주의를 매우 ‘상식적’인 주장으로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주의의 주장을 약하게 제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의도주의가 온건해지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약한 주장이 될 수 있을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반의도주의자는 물론, 온건한 의도주의자들조차도 거부하는 의도주의의 극단적 버전은 다음과 같은 주장이다.

(A) **극단적 의도주의의 주장:** 작품(발화)의 의미를 해석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 작가(발화자)의 의도가 작품(발화)의 의미를 결

13)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이 글에서 거론하는 작품은 언어로 이루어진 작품으로, 또한 작품과 발화는 동일 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으로 상정하자.

정한다.

이 주장을 온건한 의도주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의미의 결정’과 같은 일견 강해 보이는 주장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다르게는 의도주의가 적용되는 범위인 ‘모든 경우’를 약화시켜 일부 경우에만 한정하는 것이다. 의도주의자들은 후자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만, 직관적 지지를 얻기 위해 전자도 은연중에 동원하고 있는 것 같다. 이를 먼저 살펴보자.

3. 의도주의를 온건하게 하는 첫 번째 방법

비록 명시적인 논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온건함을 지향하는 의도주의는 의미의 해석을 위해 의도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거나 의도가 의미를 ‘결정’한다 같은 주장조차도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필요하게 강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심지어 캐럴조차도, ‘작품의 해석과 작가의 의도는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은 포기할 수 없다’ 정도의 주장으로도 의도주의가 가능하다고 보는 듯한 인상을 준다. 다시 말해, 어떤 의도주의자는 ‘의미의 해석은 의도와 관련을 맺고 있다’거나 ‘해석을 위해 의도를 참조해도 좋은 경우가 있다’ 정도면 자신들이 원하는 의도주의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나치게 약한 주장이다. 하지만 의도주의 편에서 볼 때 이 정도만으로도 유의미한 의도주의의 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반대편에서 있는 반의도주의가 ‘어떤 경우에도 해석과 의도는 무관하다’거나 ‘의미 해석을 위해서는 의도를 참조해서는 안 된다’ 같은 식으로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캐럴은 반의도주의를 ‘작품의 해석을 위해 작가의 의도를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으로 이해하고 있다.¹⁴⁾

물론 반의도주의는 실제로 이러한 주장으로 귀결될 수 있다. 비어즐리

의 고전적 반의도주의 논변은 잘 알려져 있다.¹⁴⁾ 그는 신비평의 원칙에 따라, 작품의 해석은 ‘텍스트 그 자체’에만 근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의 논변에 따르면 의도가 작품에 제대로 구현되었다면, 작품으로부터 작가의 의도를 추정하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 이 말은 곧 작품의 의미도 작가의 의도도 모두 작품을 근거로 하여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으로, 결국 의도를 조회하지 않고도 작품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의도가 작품에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면, 구현되지 않은 의도는 작품을 구성하거나 작품에 의해 성취된 것이 아니므로, 이런 경우 의도를 참조하는 것은 작품 이외의 것을 도입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위의 원칙에 의거할 때, 비어즐리에게는 해석에 대한 일종의 ‘반칙’이 된다. 따라서 비어즐리의 주장은 의도가 의미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근거로 반의도주의의 입장을 ‘의도가 전혀 고려될 필요가 없다’는 주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반의도주의자들의 입장을 이렇게 기술하면 의도주의는 직관에 근거한 지지를 받기에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오 교수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마치 일상 대화에서 상대방의 발화 내용이 애매할 경우, ‘그것이 무슨 뜻이야?’라고 물어 대답을 들은 후 납득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처럼, 작품의 해석에서도 의미가 분명치 않은 작품에 대해 작가의 의도를 물어 그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관행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도주의자들이 보기에 ‘텍스트 자체’에만 근거해야 한다는 신비평의 원칙은 재고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 자신들의 의도주의라고 생각한다.

14) N. Carroll (1997) p. 305.

15) M. C. Beardsley and W. K. Wimsatt (1946), “The Intentional Fallacy,” *Sewanee Review* 53, pp. 468-488. 이를 포함한 반의도주의자들의 초기 논변에 대한 정리로는 P. Lamarque (2006), “Intentional Fallacy,” *Literary Theory and Criticism: An Oxford Guide* (ed. by P. Waugh),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177-188.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이것은 의도주의와 반의도주의의 간 논쟁의 초점을 흐리는 것이다. 캐럴이 스스로의 입장을 어떻게 제시하는지를 보면서 이 점을 살펴보자. 캐럴 역시 반의도주의를 매우 강력한 형태로 설정하고 있다. 그는 자신은 반의도주의를 “작품의 의미 해석에 있어 작가의 의도나 전기적 사실에 대한 참조는 전혀 무관함”¹⁶⁾을 주장하는 입장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 이에 반하는 자신의 의도주의는 “예술 작품의 해석은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예술가의 삶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작품과 관련된 작가의 실제 의도에 관한 최선의 가설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견해는 “작가의 의도와 전기적 사실들은 작품의 해석에 유관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¹⁷⁾

양자의 입장을 이렇게 규정할 때의 문제는 의미와 의도가 유관(relevance)하다는 약한 주장과 의도가 의미를 제한(constrain)한다는 강한 주장이 혼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위의 캐럴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 (B) **의도주의의 주장:**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 의미는 작가의 실제 의도에 관한 최선의 가설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
- (C) **약화된 의도주의의 주장 1:**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 의미는 실제 의도와 관련되어 있다.

위의 인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캐럴의 궁극적으로 믿고 있는 입장은 (B)일 수 있다.¹⁸⁾ (C)와 비교할 때, (B)는 상대적으로 강한 주장이다.¹⁹⁾

16) N. Carroll (1997) p. 305.

17) N. Carroll (1997) p. 305.

18) 실제 의도주의자인 캐럴이 ‘최선의 가설’을 언급하는 것은, 실제 의도 역시 작품의 공적 측면들을 고려하여 작품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하기 위함일 것이다. 캐럴의 온건한 입장에 따르면 작품의 공적인 측면과 충돌하는 의도는 의미

당연하게도 약한 주장일수록 그 타당성에 대한 직관적 호소력은 크게 느껴진다.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은 채 그저 해석과 의도가 서로 관련이 있다는 사실 정도를 주장한다면, 이를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B)를 받아들이는 의도주의자에게 (C)는 사소하게 참이다. 실제 의도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실제 의도와 해석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니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캐럴은, 인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반의도주의자의 입장을 (B)가 아닌 (C)를 부정하는 입장, 즉 보다 약한, 그러므로 보다 큰 직관적 타당성을 가지는 주장을 부정하는 입장으로 본다.

(D) 의도주의가 해석한 반의도주의의 주장: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 작품의 의미 해석은 실제 의도와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러한 설정은 공평하지 않다. 만일 (B)가 의도주의의 핵심이라면 반의도주의는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그려져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실제로도 (B)에 반대하는 입장이 반의도주의자의 입장이다. 윌슨(Kent Wilson)이 반의도주의자임에도 자신은 해석과 의도의 관련성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²⁰⁾ 반의도주의라고 해서

를 결정하는 데 활용되는 의도로 볼 수 없다. 한편 여기서 (B)를 (C)로 약화시킨 주장도 캐럴의 것이기는 하지만, 캐럴의 온건한 의도주의에 더 잘 맞는 주장은 뒤에서 보게 될 (C*)일 것이다.

19) 작품의 의미는 실제 의도가 허락하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으로 (B)를 이해한다면, 그리고 만일 실제 의도가 여러 가능성들로 추정되어 제시되지 않고 확정적인 하나로 알려져 있는 경우라면 (즉 작가의 진정한 의도가 명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 그것에 의해 규정된다거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곧 그 의도에 의해 의미가 결정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20) K. Wilson (1997), “Confession of a Weak Anti-Intentionalist: Exposing Myself,” JAAC 55, pp. 309-310.

모든 경우에 작품의 해석이 의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얻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해석은 의도와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적절한 경우, 즉 작품을 통해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측면과 작가의 의도 사이에 불일치가 없는 경우라면 의도를 알면 의미를 알 수 있다와 같은 주장을 반의도주의자가 거부해야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런 한에서는, 또는 ‘관련’의 구체적 내용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반의도주의자들도 해석이 의도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임을 주장해야 할 이유는 없다.²¹⁾ 또한 의도주의는 의도를 ‘고려’하지만 반의도주의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입장인 것으로 양자를 구별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고려’하는 것만으로는 의도주의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려는 되지만 그것들이 의미 결정에 확정적인 힘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결정적 역할을 하더라도 언어의 공적 요소에 부합할 경우에만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의도주의로서 불리기 어려울 정도의 약한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바로 이렇게 약한 모습의 의도주의가 온건한 의도주의로 옹호되는 듯 보이기도 한다.

이제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반의도주의자들을 제대로 구분하는 방식은, 반의도주의가 캐럴의 주장 (C)가 아닌 (B)를 부정한다고 보는 것이다.

(E) 수정된 반의도주의의 주장: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는 모든 경

21) 이 점에서 현대의 반의도주의적 관점에서의 의미 해석 결과는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가 자신들이 지향하는 바를 실제로 달성했을 때의 귀결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가 ‘작품에 의해 뒷받침 되는 실제 의도’가 의미 해석과 연계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반의도주의자는 ‘실제 의도로 우회할 필요 없이 작품에 의해 뒷받침 되는 의미’가 해석을 위한 핵심이라고 할 것인데, 의도 역시 의미와 함께 작품을 통해 추정되는 것이 보통이라면, 적용에 있어 이 둘이 상반된 결과를 낳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반의도주의를 택하면 특수한 경우 작품의 공적 요소들을 근거로 작품에 ‘의도되지 않은 의미’를 부여할 가능성은 열려있고 이 점이 쟁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온건한 의도주의가 이미 공적인 요소만으로 의미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인정하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에 있어, 해석은 실제 의도에 의해 규정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자. 온건한 의도주의는 (A)를 약화시키는 하나의 방안으로 (A) 대신 (C)가 자신들의 온건한 의도주의의 내용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하다. 이것이 의도주의로서 지나치게 약한 주장이 아니라고 옹호할 수 있는 근거는 반의도주의자가 (C)의 부정인 (D)를 주장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나온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반의도주의자들은 (B)의 부정인 (E)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주장에 맞서 의도주의자가, 자신은 약한 의미의 의도주의자이기 때문에 (C)로서 충분하다고 한다면 이는 문제의 쟁점을 잘 못 파악한 것이다. ‘관련’의 해석에 따라 (C)는 반의도주의와도 양립가능하며, 그렇지 않다고 할 때에도 기껏해야 의도주의를 ‘공적인 요소만으로는 의미가 결정될 수 없다’를 주장하는 데 만족하는 입장으로 만든다.²²⁾ 의도주의 논쟁은 의도가 의미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논쟁이 아니라, 의도가 의미를 결정하는지 (위의 표현대로라면 의미가 의도에 의해 제한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점을 분명히 하였다면, 이제 두 번째 방향의 약화 가능성을 따져보자.

22) 이러한 사고를 따라간다면 결국 온건한 의도주의는 ‘의도만으로도 의미를 결정할 수 없지만 공적인 요소만으로도 의미를 결정할 수 없다’를 주장하는 입장이 될 것이다. 이것에 만족할 의도주의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이는 위의 주 20에서 지적한 이유로 스스로를 부정하는 주장이다.

4. 의도주의를 온건하게 하는 두 번째 방법

(A)를 약화시켜 보다 합리적인 입장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은 ‘모든 경우에서’라는 보편 명제를 부정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즉 (B)는 (C*)와 같이 약화될 수도 있다.

(C*) **약화된 의도주의의 주장 2:**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는 어떤 경우에, 의미가 작가의 실제 의도에 관한 최선의 가설에 의해 규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 방식은 ‘모든 경우’ 의도가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을 극단적 의도주의의 주장으로 상정하고, 이것을 ‘어떤 경우에 그러하다,’ 즉 ‘의도가 의미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로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 말은 ‘의도가 의미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를 함축하므로 위의 경우처럼 ‘백록담’이라는 의도로 인해 “천지”의 의미가 ‘백록담’으로 결정되는 경우를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이는 의도주의의 온건화 전략에 부합하며 실제로 온건한 의도주의가 택하고 있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는 언어의 공적인 요소에 부합하지 않는 의도는 의미를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언어의 공적인 요소를 도입한 의도주의는 어떤 경우에 의도가 의미를 결정한다고 하는지 분석해 보자. 두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작가의 의도 중에서 언어의 공적 요소에 맞는 의도가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스테커의 ‘성공적으로 작품에 구현된 의도’가 작품의 의미를 결정한다는 주장과 같은 것이다. 다른 하나는, 언어의 공적인 의미가 허락하는 여러 가능성 중에서 작가의 의도가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 역시 일반적으로 온건한 의도주의가 이해되는 방식이고 우리의 상식적 관행에 더 잘 부합하는 모습이다. 우리는 대개 언어의 공적 요소를

통해 문장의 의미를 축어적으로는 이해했지만, 맥락과 배경을 고려한 더 큰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곤 하기 때문이다.²³⁾

결국 온건한 의도주의가 시도하고 있는 절충은 어떤 경우에는 의도가 작품의 의미를 결정하고, 다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 오 교수와 캐럴의 논변에 따르면 작품의 공적인 요소만으로는 그 의미가 애매한 경우에는 의도가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또다시 ‘의미가 애매한 경우에는 의도를 참조해도 좋다’ 정도로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이는 앞서 보았듯이 불합리하다. 첫째 반의도주의가 의도를 ‘참조’하는 것조차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며, 둘째, 만일 의도주의가 참조는 하되 결국 공적인 요소들을 위반하지 않을 때에만 의도가 의미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라면 많은 경우 반의도주의와 같은 결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도주의자는 외견상 다소 강해 보이더라도 ‘의도가 의미를 전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주장해야 한다. 이 주장으로 극단적 의도주의의 맹점은 피할 수 있는데, 모든 경우 그런 것은 아니며 애매한 경우에만 그렇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반의도주의는 ‘의도가 의미를 전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결코 없으며 애매한 경우에도 의도가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두 진영 간의 쟁점이다.

23) 이와 관련하여, 발화의 1차적 의미와 2차적 의미를 구별하는 오 교수의 논의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즉 오 교수는 ‘발화가 의미하는 것’과 ‘발화가 의미할 수 있는 것’을 구별하고, “의도주의자는 당연히 전자의 경우에만 발화자(작가)의 의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기에 후자의 경우에서 발화자(작가)의 의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의도주의가 틀렸다는 비판은 그릇된 것이다.”(오종환(2016), p. 2)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문학의 경우에만 한정하더라도) 진정으로 작품 해석이 필요한 많은 경우를 의도주의의 관심사 밖으로 내 몰 우려가 있다.

5. 반의도주의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

의도주의자들은 ‘의도가 의미를 전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없다’ 혹은 ‘의미의 해석에서 의도의 참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와 같은 반의도주의의 주장을 반직관적이라고 전제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러한가? 이것이 필요 이상으로 반직관적으로 보이는 데에는 의도주의자들을 직관적으로 지원하는 또 하나의 선입견이 개입되어 있는 것 같다. 의도주의를 상식으로 받아들이거나 직관적으로 승인하는 입장이 보기에 반의도주의자들은 단어들의 사전적 의미와 문법적 규범에 따르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만이 발화의 의미라고 간주하는 입장처럼 보일 수 있다. 만일 실제로 반의도주의의 입장이 이런 것이라면 직관은 의도주의의 편을 들 수밖에 없다. 우리의 언어생활의 많은 부분이 이런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닌 의미를 주고받는 것임은 너무도 자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 반의도주의의 입장에 대한 오해이다. 앞서 언급한 비어즐리의 경우라면 몰라도, 현대의 반의도주의자가 작품에 내재하는 속성들에만 국한해서 작품을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다. 문학의 경우에도 반의도주의는 문자로 쓰인 텍스트 속 문장들의 문법적이고 사전적 의미만이 작품이 허락할 수 있는 의미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반의도주의자들도 의미 해석을 위해 화용론적 발화 맥락을 비롯하여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콘텍스트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어적으로 확립된 관행, 기존의 해석의 역사를 통해 확립된 관행들도 고려된다.²⁴⁾ 다만 그것이 공적으로 발견되고 확인될 수 있는 관습과 맥락이어야 하며, 그러한 관습이나 맥락에 의존하여 결정되는 의미 역시 공적으로 동의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즉, 일부 의도주의자들의 오해와 달리, 반의도주의자들은 공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미 해석을 위해 텍스트의 내

24) 윤주한(2013), 『예술작품의 해석과 예술가의 의도의 관계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미학과 석사학위논문, p. 118.

용뿐 아니라 관습이나 맥락이나 역사적 사실들을 동원하는 것을 전혀 꺼려하지 않는 입장이다. 따라서 캐럴이 우드(Ed Wood) 감독의 B급 SF 영화가 ‘헐리우드 영화 만들기에 대한 조소’로 ‘둔갑’하는 시대착오적 해석이 불만이라면,²⁵⁾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반드시 우드 감독의 실제 의도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의도주의자도 역사적 사실과 공적 맥락에 기대어 그러한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보았듯이 반의도주의자의 입장이 해석을 할 때 의도는 어떤 것이라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공적으로 밝혀져 있는 의도가 공적인 의미 결정 요소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거나 최소한 그들과 상충되지 않는 경우라면, 의도를 고려하는 것이나 공적인 관습과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나 의미 해석에 있어 동일한 결론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반의도주의도 편의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반의도주의가 주목하는 것은 의도를 고려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 결정이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느냐의 문제이다. 의도가 고려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공적으로 확인 가능함이라는 속성이 필요하다. 즉 그러한 의도가 작품을 통해 뒷받침(혹은 작품이 그 의도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한다.

공적인 맥락에 관한 오해를 정리하고 나면 결국 반의도주의의 핵심은 (1) 의미의 결정은 공적인 요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2) 공적인 요소와 충돌하는 의도에 의한 의미 결정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25) N. Carroll (1992), pp. 119-121.

6.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의 딜레마

이상의 설명을 통해 필자가 보이려 한 것은 직관적 지지를 얻기 좋은 방식으로 의도주의의 주장을 약화시킴으로서 논쟁을 의도주의 편에 서서 해결하려는 시도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즉 ‘해석을 위해 의도를 참조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당연한 일’이라는 직관에 호소하여 ‘의도를 고려하여 작품을 통해 확인되면 의미로 인정한다’ 정도의 주장을 하는 것은 의도주의가 아니다. ‘의도에 의해 의미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를 주장하는 것이 의도주의이다.

그렇다면 온건한 의도주의의 절충(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최소한 특정 상황에서는 의도가 의미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왜 의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인가? 필자는 온건한 의도주의가 이론 자체에 모순적 요소들을 품고 있어서, 결국 원칙 없는 절충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 비판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가 보아온 대로 의도주의는 (1) 의도가 의미를 전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음을 주장해야만 한다. 하지만 동시에 온건한 의도주의는 (2) 언어의 공적인 요소와 충돌하는 의도는 의미를 결정할 수 있는 의도가 아니라고 해야 한다. 이 두 주장이 모두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도가 언어의 공적인 요소와 충돌하지 않을 때에만 의미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 될 것이다. 공적인 요소와 충돌하지 않는 때는 언제인가? 당연히 공적인 요소와 의도가 일치할 때이지만, 만일 이럴 때만 의도가 의미를 결정한다고 하면 이 주장의 실질적인 내용과 결과는 반의도주의와 다름이 없게 된다.²⁶⁾

그렇다면 온건한 의도주의를 받아들여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26) 이런 경우에도 의도주의가 주장될 수 있으려면, 설명의 결과가 같더라도 의도주의가 그 동기에 있어서 해석과 의미에 대한 문제를 더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의도주의의 동기들이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 대한 논의는 이해완(2014), pp. 206-210.

있는 거의 유일한 경우는 공적인 요소가 두 가지 이상과 양립 가능할 때, 즉 공적인 요소로만은 의미를 확정할 수 없을 때뿐이다. 결국 온건한 의도주의의 입장이란 최소한 이런 때에는 의도가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언어의 공적인 요소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의도가 의미를 전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하나라도 가졌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의도주의의 이런 입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첫 번째 반론은 언어의 공적인 요소에 근거하여 판단된 의미가 애매한 경우, 왜 그것이 애매한 의미를 가진 발화로 남아있지 않고 어떤 식으로건 확정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다. 예를 들어 발화자가 우리 어휘에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공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빨홍”이라는 발화를 했다면, ‘무슨 소리를 한 것이야?’를 물어 의미를 확정해야 할까? ‘분홍’을 의도하면서 “빨강”을 발화한 발화자의 의도는 무시되어야 마땅하지만 (이것이 온건한 의도주의의 입장임을 앞서 확인했다) “빨홍”을 발화한 경우에는 의도를 존중하여 이 발화의 의미를 분홍으로 확정해야 할까? 지금까지의 온건한 의도주의에 대한 논의로 본다면 이 경우 그렇다고 답해야 할 것 같다. “빨홍”이 애매하기 때문이다.²⁷⁾ 하지만 “빨홍”은 공적인 언어 규칙에서

27) 이 논문을 심사한 익명의 심사위원 중 일인은 “빨홍”은 애매한 단어가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 않는 단어이어서 공적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단어임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문법이나 사전 등재 여부만이 아니라 발화의 맥락 등도 모두 공적인 것이라면 ‘애매한 표현’의 사례로 사전적 의미가 중의적인 경우만을 제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이상의 『오감도』 중 ‘시제5호’는 “胖矮小形の神의眼前에我前落傷한故事를有함”이라는 구절을 가지고 있는데, 문법, 사전적 의미, 언어적 관행 등 어떤 공적인 기준을 동원해도 복수의 중의적 의미들은 커녕 의미의 후보 하나 조차도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구절은 “빨홍”과 다를 바 없이 공적인 규칙을 무시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표현이 될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구절의 의미야말로 작가의 의도에 기대어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도주의의 입장이 아닌가? “빨홍”의 예는 ‘험프터 덤프터’와 같은 사례이기에 극단적 의도주의와 다른 온건한 의도주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위의 시 구절 같은 경우도 온건한 의도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위의 각주 23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의도주의의 적용 범위를 축소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즉 공적

용납할 수 없는 잘못된 발화여서 발화자의 선명한 의도(‘분홍’)에도 불구하고 아무 의미도 가질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온건한 의도주의가 언어의 공적인 요소에 주목하는 것은 의도가 언어의 공적인 요소를 거치지 않고는 성공적으로 드러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 언어의 공적인 요소를 무시한 의도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의도가 언어의 공적인 요소를 통해 드러나지 않는 애매한 경우란 결국 성공하지 못한 의도 아닌가? 그렇다면 온건한 의도주의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경우 의도는 고려되지 않아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의도가 의미를 결정할 수 없다면 과연 온건한 의도주의가 의도주의임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은 언제인가? 사실 이 상황은 일종의 자가당착으로 보인다. 온건한 의도주의는 온건함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강한 의도주의의 반직관적 귀결)로 인해, ‘모든 경우’에 의도가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을 포기하였다. 대신 언어의 공적 요소로 의미를 결정할 수 없는 애매한 경우가 의도가 의미를 결정하는 경우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자신들의 온건함을 위해 필요한 또 다른 원칙(공적인 요소를 통해 성공적으로 구현되지 못한 의도는 의미를 결정하게 할 수 없다)으로 인해, 이 이매한 경우는 의도가 성공적으로 구현되지 못한 경우가 되고, 결국 의도가 의미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한편 이 경우 청자가 앞뒤 문맥을 고려하여 그것이 분홍의 잘못된 발화인지 빨강의 잘못된 발화인지를 추정할 수는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는 고려하는 공적인 요소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을 뜻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넓어진 공적인 텍스트와 콘텍스트로부터 의미와 의도를

인 기준에 의해 중의적이 되는 경우, 즉 “은행을 텅시다”(열매 수확, 금융 기관 강도)같은 경우에만 의도주의가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의도주의의 적용 범위를 심각하게 축소시킬 것이다. 또한 이러한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실제 의도가 고려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이해완(2014), pp. 205-206).

추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선 온건한 의도주의의 논의에 따르면 실제 의도가 이 추정에 부합할 경우에는 의도대로 의미가 결정되고,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의도는 아무 역할을 못하고 공적인 측면에만 근거해서 의미가 결정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 상황이 의도주의가 적용된 상황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 상황은 바로 공적인 요소로만 의미가 결정되어도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가 원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경우가 될 것이다.

필자가 보는 온건한 의도주의의 전체적인 딜레마 상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빨홍”으로 분홍을 의미하고자 했던 화자의 실제 의도가 있었음에도 그것이 발화 전후의 콘텍스트를 활용하여서는 전혀 그 의미를 추정할 수 없는 애매한 표현이라고 해보자. 이 경우, 언어의 공적인 요소가 지지하는 해석은 ‘이 발화는 빨강과 분홍 사이에서 의미 결정을 할 수 없어서 애매하다’이거나 혹은 ‘이 발화는 아무 의미 없는 무의미한 발화이다’가 될 것이다. 이때 굳이 의도를 도입하여 빨강과 분홍 중의 어느 하나로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언어의 공적인 요소를 존중하겠다는 온건한 의도주의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다.

한편 “빨홍”의 의미를 맥락으로 추정할 수 있고 그것이 실제 의도인 분홍보다는 빨강을 더 그럴듯한 해석으로 만든다고 해보자. 이런 경우 온건한 의도주의가 위의 원칙을 계속해서 존중한다면 실제 의도인 ‘분홍’을 무시하고 공적인 맥락에 의해 결정되는 의미인 ‘빨강’이 바로 이 맥락에서의 “빨홍”의 의미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결과는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한 결과이지만 여기서 의도주의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렇게까지 후퇴한 온건한 의도주의가 어떤 의미에서 의도주의인지 의심스러워진다.

마지막으로, 공적인 요소와 맥락을 통해 실제 의도인 분홍이 이 맥락에서의 “빨홍”의 의미로 추정되었다고 해보자. 이때 비로소 의도주의자는 이것이 바로 성공한 실제 의도가 애매한 상황의 의미를 결정한 경우

라고 주장하려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결과 역시, 실제 의도를 우회한 채 공적인 요소에만 의존하여 의미가 결정된 경우와 비교할 때 아무 차이가 없게 된다. 여기서 온건한 의도주의는 반의도주의자와 같은 결과를 내는 증거를 이용해서 의도주의를 옹호해야 하는 곤경에 처한다.

“빨홍”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백록담’을 의도하고 발화된 “천지”로는 ‘백록담’을 의미하게 할 수 없다는 경우에 대해서조차도 온건한 의도주의가 과연 원칙적으로 일관된 설명을 할 수 있을지를 의문스럽게 한다. 애매한 표현일 경우 의도에 의존하여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면 “천지”를 애매한 표현으로 보고 같은 방식을 적용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특히 전후의 맥락을 통해 발화자의 “천지”가 ‘백록담’을 의도했지만 잘못 발화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천지”는 백록담을 의미할 수도 있다. 반의도주의는 이러한 상황을 텍스트와 콘텍스트의 공적인 측면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다. 애매한 경우는 애매하게, 추정이 가능한 부분은 그에 따라 의미를 확정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는 애매한 경우에는 실제 의도를 존중한다는 원칙과, 공적으로 확정 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의도를 무시해도 좋다는 원칙으로 인해 이미 이론적인 일관성이 훼손되어 있는데다, 둘 중 하나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애매한 경우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에도 봉착한다. 지금 본 것처럼, 무엇이 애매한 경우인가를 놓고 작위성이 개입할 여지마저도 있는 것이다. 단지 기존 어휘에 “빨홍”은 없고 “천지”는 있다는 정도의 기준으로는 그 작위성을 해소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전체적인 문맥을 고려할 때 “빨홍”이 오히려 분홍의 오타라는 것이 확실하게 추정 가능하여 전혀 애매하지 않고, “천지”가 오히려 과연 문자 그대로의 천지를 말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의 반어적-상징적 표현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발화의 애매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고전적인 의도주의자 허쉬(E. D. Hirsch)의 논의에서 이미 볼 수 있었던 것이다.²⁸⁾ 그의 입장

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발화는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의미의 확정을 위해서는 실제 의도가 그 결정권을 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허쉬의 전제가 사실인지는 논쟁적이겠지만 만일 실제로 그러해서 우리의 발화 상황이 공적인 요소만으로는 의미를 확정할 수 없이 애매하다면 물론 반의도주의적 접근은 위축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극단적 의도주의와 분리되어 언어의 공적인 요소를 인정하려는 온건한 의도주의의 근거도 마찬가지로 위협한다. 대부분의 발화가 발화자의 실제 의도에 의해 의미가 결정되어야 하는 애매한 발화라는 생각에 기초한다면 언어의 공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라는 애초의 온건한 의도주의의 동기는 부정될 것이고, 결국 절충은 시도할 이유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7. 반어와 온건한 의도주의

온건한 의도주의도 언어의 공적인 측면을 존중해야 한다면 이 입장이 그동안 의도주의를 위한 최후의 보루처럼 여겨왔던 반어(irony)를 여전히 자신의 지지 사례로 간주함에 있어 뜻밖의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다. 반어가 의도주의를 옹호하기에 매우 적절한 사례로 보이는 상식적인 이유는, 주어진 텍스트가 반어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의도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캐럴이 인용하는 고전적인 사례인 스위프트(Jonathan Swift)의 『겸손한 제안』(A Modest Proposal)에서부터²⁹⁾ “잘했어”가 칭찬이 아니라 비난이 되기

28) G. Dickie and K. Wilson (1995), “The Intentional Fallacy: Defending Beardsley,” JAAC 53, pp. 236-239, 윤주한(2013), pp. 40-52.

29) N. Carroll (2000), p. 88. 가난한 아일랜드 사람들은 자식을 부자들에게 음식으로 팔면 된다는 제안을 하고 있는 이 글은 『가난한 집 자녀들이 부모와 국가의 부담이 되지 않고 전체 사회에 기여하게 할 수 있는 겸손한 제안』이라는 길고 반어적인 제목을 가지고 있다.

도 하는 일상 대화의 경우에 이르기까지, 언어의 공적인 요소들이 보여주는 것과 정반대의 의미를 갖는 것이 반어라면, 이는 의도의 개입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드는 것 같다. 캐럴이 가설의도주의에 대한 실제 의도주의의 우위를 보이기 위해 인용하는 코미디언 앤디 카우프만(Andy Kaufman)의 사례도 반어와 유사하다. 많은 관객들에게 실제 상황으로 받아들여졌던 카우프만과 프로 레슬러와의 대립이 사실은 연출된 것이었다는 사례는 의미 결정을 위해 실제 의도가 필수적임을 보여준다는 것이다.³⁰⁾

그러나 정말로 그러한가? 필자가 보기에는 단지 의도만으로는 특정 발화가 반어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만일 이것이 허용된다면 반어는 허쉬 계열의 극단적 의도주의가 허용되는 영역이 된다. 하지만 미사여구와 칭송으로 가득 찬 송시가 문맥을 통해 지적되거나 발견될 수 있는 아무런 힌트나 복선 없이 그저 화자의 의도에 의해, 사실은 비난의 의도를 숨긴 풍자시였던 것으로 결정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다. 물론 반어는, 반어이기에,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는 밝혀 낼 수 없다. 그러나 언어의 공적인 요소는 앞서 논의한대로 맥락적 요소, 화용론적 요소, 관습적 요소 등을 모두 포함한다. “잘했어”가 비난이 되는 맥락 및 화용론적 관습은 대개의 경우 누구에게나 그리 어렵지 않게, 공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반어는 반어로 읽힐 수 있는 맥락적 뒷받침(작품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작가를 둘러싼 전기적인 맥락에서라도 발견되는)이 있어야 반어로 성립된다.³¹⁾

하지만 논증을 위해, 의도주의자들이 원하는 대로 반어는 발화자의 실제 의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 보자. 즉 발화의 내용은 물론 발화를 둘러

30) N. Carroll (2002), pp. 333-340.

31) 따라서 필자는 반어나 은유에 대한 네이션의 반의도주의적 대응에 의견을 같이한다. D. Nathan (1992), “Irony, Metaphor and the Problem of Intention,” G. Iseminger (1992), pp. 183-202.

싼 공적인 맥락과 관습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칭송 이외의 것을 의미할 수 없는 텍스트가 발화자의 의도에 따라 비꼼의 의미를 갖는 풍자로 되어 반어로 성립되었다고 해보자. 이제 온건한 의도주의로 진화한 의도주의는 자신을 그렇게 절충하도록 만든 동기로 인해, 극단적 의도주의와는 달리, 역설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용인할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 같다. 즉 성공적으로 구현된 의도가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이 온건한 의도주의의 입장이라면, 이 입장에서 볼 때, 텍스트의 다른 공적 요소들에 의해서는 지지되지 않지만 반어라는 의도에 의해서만 지지되는 반어를 성공적인 반어라고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는 그들이 배제하고자 했던 “빨강”이라고 쓰고 ‘분홍’을 의미하는 사람과 원칙상 다를 바가 없다. 칭송으로 읽히는 것이 분명한 텍스트를 놓고 비난을 의미했다고 하는 것이니 말이다.

온건한 의도주의가 이것을 칭송일 수도 있고 비난일 수도 있는 애매한 텍스트이기에 실제 의도에 따라 비난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하지만 주어진 텍스트를 문자 그대로의 의미의 차원에서 고려하면서 거기에 ‘반어적인 애매함’이 있는지를 본다면, 거의 모든 발화는 애매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어떤 문맥에 놓이는지에 따라 ‘잘했어’는 ‘망했어’의 반어, ‘꼭 오세요’는 ‘절대 오지 마세요’의 반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이것을 확정해 주는 것이 문맥과 관습이다. 내가 들은 ‘잘했어’가 비난인지를 알기 위해 의도를 참조할 필요는 없다. 발화의 관습과 맥락으로 나는 대개의 경우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 따라서 관습과 맥락에 의해 지지되는 반어는 애매한 텍스트가 아니다. 문자 그대로는 칭찬처럼 말하지만 비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정된’ 텍스트인 것이다. 문자 그대로의 차원에서는 모든 발화가 반어일 수 있어서 애매하고, 문맥까지 고려한 차원에서는 대개의 반어가 애매하지 않다는 사실은 ‘반어는 의미 결정을 위해 의도가 필수적인 애매한 텍스트’라는 주장을 하기 곤란하게 만든다.

맥락을 동원하더라도 반어임이 확증되지도 반증되지도 않는, 진정으로 애매한 텍스트의 경우는 어떤가? 이 경우는 반어와 직설법 모두와 양립 가능하므로 의도에 따라 그 의미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 경우에는 “빨홍”의 의미 확정과 관련하여 들었던 의문과 다시 마주친다. 언어의 공적 요소와 문맥을 모두 고려해도 반어적 비난일 수도 있고 직설적 찬양일 수도 있는 텍스트란, 발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감추기 위해 바로 정확히 그러한 애매함을 의도한 것이 아닌 다음에야,³²⁾ 성공하지 못한 발화가 된다. 만약 둘 중 하나만을 의도했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구현되었다면 발화자는 그것이 문맥과 공적 요소들을 통해 ‘발견’될 수 있도록 (비록 놀라운 정도의 섬세함이 동원되어야 함을 전제하더라도) 했어야 했다.³³⁾

32) 아이세밍어는 의도주의에 따르면, 중의적인 작품이란 의도가 중의적인 작품이라고 한다. G. Iseminger (1992), p. 7.

33) 언어나 관행, 관습의 공적인 측면, 그리고 이에 근거한 ‘발견의 가능성’은 반의도주의가 ‘암시’(allusion)의 문제에 접근하는 데에도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암시에 대한 의도주의자의 논의로는 다음의 논문들 참조. G. Hermeren (1992), “Allusions and Intentions,” *Intention and Interpretation*, pp. 203-220; T. Gracyk (2007), “Allusion and Intention in Popular Art,” *Philosophy and the Interpretation of Pop Culture* (ed. by W. Irwin and J. Gracia),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p. 65-87). 예를 들어, 작품 속에 등장하는 기존 작품에 대한 암시(오마주, 패러디 등 포함)는, 의미 해석을 위해 암시하는 작품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라는 작가의 의도의 산물임이 분명하다. 이때 암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작가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는 의도주의에 유리한 사례로 간주된다. 작가의 의도가 의미를 결정하는 사례로 보이기 때문이다. 즉, 아무리 기존 작품과의 연계성이 탐지되더라도 작가가 그렇게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기존 작품을 끌어들이는 의미 해석은 부적절하고, 반면 아무도 발견할 수 없었더라도, 작가가 암시를 의도했다면 이는 작품의 발견되지 않은 의미의 일부로 작품에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언어의 공적인 요소에 대한 존중이 그 공공성이 가진 힘으로 인해 사적인 의도로 뒤집힐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확고하게 자리 잡은 관행으로 인해 누구든 쉽게 지적할 수 있는 암시의 경우에는, 작가가 그럴 의도가 없었음을 밝히더라도, 관행에만 근거한 (즉 의도를 무시한) 해석을 부당하게 만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아무리 반어적인 요소가 발견되더라도 의도가 없었으면 반어가 아니게 되고, 반면 반어적인 의도가 있었다면 그것이 의도된 대로 받아들여졌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반어가 된다는 것은 극단적 의도주의가 할 법한 주장이다. 의도가 반어를 결정한다는 이 입장에서는 ‘실패한 반어’ 같은 개념은 없다. 하지만 언어와 맥락의 공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온건한 의도주의자들에게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반어가 존재해야 한다. (혹은, 반어의 의도가 무시되는 경우가 존재해야 한다.) 온건한 의도주의자도 필자와 마찬가지로, 공적인 요소에 의해 지지되는 반어, 반어임이 발견될 수 있는 반어만을 성공한 반어로 간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그동안 반어가 가졌던 의도주의를 옹호하는 효과는 사라져 버린다. 반어는 더 이상 의도의 위력이 특별히 느껴지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텍스트와 문맥에 의해 지지되는 것이 반어라면 반의도주의자도 의도의 도움 없이 반어를 반어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이러한 지적이 타당하다면, 반어는 급진적인 의도주의를 옹호하는 데 동원될 사례는 될 수 있을지언정 온건한 의도주의를 위한 사례가 되지 못한다.

영화 「킬 빌」에서 여주인공이 입고 나온 노란색에 검은 줄무늬가 있는 체육복이 문맥과 관례상 분명하게 영화 「사망 유희」의 이소룡에 대한 암시 혹은 오마주로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면, 이는 타란티노 감독의 의도로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닐까? 만일 그가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말한다면, 그로 인해 오마주의 성립(오마주의 존재는 의도에 의존하는 것이므로)은 불가능해질 수 있지만 그 이유로 이 해석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암시는 작품이 하는 것이지 작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아주 반직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8. 나가며

지금까지 필자는 작품의 의미 해석과 관련하여 온건한 의도주의가 제시한 절충의 방안이 구체적이고 정합적인 이론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를 비판적인 입장에서 검토하였다. 특히 ‘성공한 실제 의도가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고, 공적인 요소로 의미를 정할 수 없는 애매한 경우에는 실제 의도가 의미를 결정할 수 있다’는 방식의 느슨한 절충은 직관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론적 원칙이 없는 입장임을 보이고자 했다. 의도주의가 공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를 의도주의의 틀 내에서 정당화하는 방식은 ‘성공적인 실제 의도’ 혹은 ‘공적인 요소들과 양립하는 실제 의도’를 통해서이다. 이는 공적인 요소를 존중하여 극단적인 의도주의의 난점을 피할 수 있게 해주지만, 이러한 설명에서 실제 의도의 힘과 역할이 미미하다는 비판에 대해 의도주의의 입장에서 옹호할 말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의도를 동원하지 않고도 동일한 결과를 낳는 설명을 반의도주의가 제공할 수 있다면 이는 의도주의의 옹호 방식이라고 내세우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이를 피하고 의도주의만의 특성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그래서 애매한 경우에는 의도가 의미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면, 의도주의의 명맥은 유지될지 모르지만 공적인 요소의 존중이 필요하다는 온건한 의도주의의 원칙이 립 서비스에 그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딜레마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실제 의도가 의미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절충 방안이 의도주의를 기본으로 하여 나올 수 있을지, 필자가 보기에는 확실치 않다.³⁴⁾ 물론

34) 이 글은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보다 절충으로서 보다 더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가설 의도주의(hypothetical intentionalism)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윤주한이 지적한 바와 같이(윤주한 (2013), pp. 79-83), 필자 역시 가설 의도주의의 입장이 의도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뿐 그 원칙과 방법에 있어서는 필자가 이 글에서 지지하고자 하는 입장, 즉 공적인 맥락을 중시하는 반의도주의적 입장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반의도’에 집착하는 것이

의도주의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해야 하는 충분한 동기를 가지고 있고 강한 직관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겠지만, 반의도주의 역시 이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작품이 의도의 산물임이 사실이더라도 그 의도가 작품의 의미도 결정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에 좀 더 주목한다면, 의도주의를 지지하는 강한 직관마저도 재고될 수 있을지 모른다.

아니라 의미의 공적인 성격에 주목하는 것이므로 필자의 반의도주의적 정신이 가설 의도주의의 형태로 구현될 수도 있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오히려 필자는 가설 의도주의가, 그 세부적인 내용이 보다 충실히 검증되고 알려진 반론에 대한 답변이 마련되어, 의도와 의미에 관한 최종적 이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심정이다.

참고문헌

- 오종환(2016),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의 옹호』, 서울대학교 미학과 제127회 콜로키움 발표 원고 (미출간).
- 윤주한(2013), 『예술작품의 해석과 예술가의 의도의 관계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미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해완(2017), 『노엘 캐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해완(2014), 『작품의 의미와 의도주의-반의도주의 논쟁』, 『미학』 79.
- Beardsley, M. C., and W. K. Wimsatt (1946), “The Intentional Fallacy,” *Sewanee Review* 53.
- Carroll, N. (2009), *On Criticism*, N.Y.: Routledge, 이해완 역(2015), 『비평철학』, 성남: 북코리아.
- _____ (2002), “Andy Kaufman and the Philosophy of Interpretation,” In *there a Single Right Interpretation?* (ed. by M. Krausz) University Park: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_____ (2000), “Interpretation and Intention: The Debate Between Hypothetical and Actual Intentionalism,” *Metaphilosophy* 31.
- _____ (1997), “The Intentional Fallacy: Defending Myself,”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55.
- _____ (1992), “Art, Intention and Conversation,” *Intention and Interpretation* (ed. by G. Iseminger),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Davies, S. (2006), “Authors’ Intentions, Literary Interpretation, and Literary Value,”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46.
- Dickie, G. and K. Wilson (1995), “The Intentional Fallacy: Defending Beardsley,”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53.
- Gracyk, T. (2007), “Allusion and Intention in Popular Art,” *Philosophy and the Interpretation of Pop Culture* (ed. by W. Irwin and J. Gracia),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 Hermeren, G. (1992), “Allusions and Intentions,” *Intention and Interpretation*

- (ed. by G. Iseminger),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Irwin, W. (2015), "Authorial Declaration and Extreme Actual Intentionalism: Is Dumbledore Gay?"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73.
- Lamarque, P. (2006), "Intentional Fallacy," *Literary Theory and Criticism: An Oxford Guide* (ed. by P. Waugh),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Nathan, D. (1992), "Irony, Metaphor and the Problem of Intention," *Intention and Interpretation* (ed. by G. Iseminger),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Stecker, R. (2006), "Interpretation and the Problem of Relevant Intention," *Contemporary Debates in Aesthetics and Philosophy of Art* (ed. by M. Kieran), Malden; MA: Blackwell.
- Wilson, K. (1997), "Confession of a Weak Anti-Intentionalist: Exposing Myself,"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55.

원고 접수일: 2017년 6월 28일

심사 완료일: 2017년 7월 12일

게재 확정일: 2017년 7월 26일

Abstract

Not Moderate, Or Not Intentionalism:
A Criticism on Moderate Intentionalism

Lee, Haewan*

Intentionalism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uthorial intention in interpreting an artwork. It has evolved into moderate intentionalism (MI) by means of circumventing the well-known Humpty-Dumpty problem caused by radical intentionalism. This ‘moderation’ is done basically by accommodating the public elements of language into the theory of intentionalism. So MI now claims that not just any and every intention, but only the intentions successfully realized in the work can determine the meaning of the work. In this article, I argue against this type of compromised intentionalism based on my suspicion that this cannot result in a coherent and principled-theory.

First, we need to be clear about the essential claims in each position and how they draw the line of conflict. The description that anti-intentionalism (AI) denies the relevance of intention in interpretation while MI does not is somewhat misleading. Instead, I propose that MI should be understood as a position which allows a case where the authorial intention wholly determines the meaning. MI need not claim this be every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Aesthet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case. Yet if MI does not allow such cases, that is, if MI admits that all intentions should be constrained by the public elements of language, then there might not be much differences between MI and AI.

After establishing the real claim of MI, I examine the actual content of MI as a theory rather than as an intuitively appealing slogan. The situation looks to me dilemmatic. If the public nature of the language and the context of the utterance is emphasized as the constraining factor for determining the meaning, this seriously weakens the character of the theory as a version of intentionalism. In order to maintain the intentionalism, MI can claim, as it actually does, that in the case where the work's meaning is ambiguous (i.e., where the public elements cannot determine the meaning), the authorial intention can play the role and determine the meaning of the work. However, if the ambiguity is what the public elements of the work report about the work, then it should not be disregarded as long as MI cherishes its original motivation to be moderate. An ambiguous work shows that the authorial intention is not successfully realized. Therefore in MI, a failed realization of authorial intention should not override the ambiguity and should not force us to determine the meaning of the work. If it does, it is no longer MI but radical intentionalism. In addition, I also find that the case of irony, which has been an important supporter of intentionalism, would no longer favor MI due to the motivation of MI to be moderate. I conclude that MI is not a sustainable position.